대우조선해양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대우조선해양

DSME 대우조선해양

日 특허분쟁 또다시 승소 PRS 기술력 '우위' 입증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

LNG운반선 화물손실 최소화 기술

美·유럽·中·중동·인도 등 특허 등록

대우조선이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하고 2016년 9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PRS·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들 중 일본 경쟁사가 특허 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소송에서 2017년 첫 승소 이후 3건 모두 승소했다.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특허 이의신청 사건은 약 7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이의신청의 경우는 약 20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일본의 경쟁업체는 PRS 특허의 무효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대우조선해양 특허팀과 한국·일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독점적인 특허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일본에서 건조하는 LNG운반선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LNG운반선이 일본에 입항해도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 기화되어 손실된다. PRS는 이처럼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특히 기존 재액화 장치에 비해 설치비가 약 40억원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선주라면 누구나 탐낼만한 기술이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PRS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현재까지 51척을 수주하여 23척은 인도 완료 하였고, 28척은 건조 중에 있다.

이 때문에 PRS 기술은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경쟁사가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특허 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계속 하는 등 경쟁사의 견제가 심했던 대우조선해양 LNG운반선의 핵심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적인 PRS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PRS 기본특허 및 개량특허들에 대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LNG운반선 수주 및 건조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 연료인 LNG의 연료공급기술 및 증발가스 재액화 기술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해외 경쟁 조선사의 진입을 방어하여 한국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의 핵심기술인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서도 유럽(2014년 승소)과 중국(2017년 승소)에서 승소를 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프랑스 女소비자 호감도 '1위'

삼성전자가 프랑스 여성 소비자들에게 가장 호감도 높은 브랜드로 선정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는 최근 '2019년 우먼스 랭킹' 프랑스 조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온라인 여성 네티즌을 대상으로 집계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57.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54.2점)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삼성전자는 유튜브(52.4점)를 비롯해 현지 브랜드인 데카틀롱, 본마망, 크리스탈린, 돌리프란 등도 제쳤다.

필리핀에서도 68.1점을 획득하면서 1위를 이어갔다. 그 밖에 베트남(60점)과 네덜란드(59.2점) 2위를 비롯해 독일(52.3점), 인도네시아(58.4점), UAE(55.7점) 등에서는 5위, 멕시코(58점)에서는 7위를 차지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단, 국내에서는 LG가 42점을 받아 여성들에게 가장 호감도 높은 브랜드로 꼽혔다. 삼성전자는 10위권에서 벗어났다. 글로벌 랭킹에서도 삼성전자는 10위권 진입에 실패했다.

/김재웅 기자 juk@

삼성SDS, '블록체인'으로 물류혁신 이끈다

소비자에 양식·출하·유통 과정 제공

반복업무 자동화로 업무효율도 향상

삼성SDS는 오는 14일 열리는 '첼로 컨퍼런스 2019'에서 물류 블록체인 기반 유통이력관리 서비스, 물류 업무 자동화 사례 등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물류 블록체인 기반 유통이력관리 서비스는 국내 수산 가공업체로 구성된 ASK수출협의회와 소비자 대상으로 수산물의 양식-출하-유통 전 과정을 투명하게 제공한다.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형태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삼성SDS가 지난해 시범 적용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한 후 ASK수출협의회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 상용화됐다.

또한, 삼성SDS는 자사 업무 자동화 솔루션(IPA)인 브리티워스를 적용한 물류 업무 자동화 사례를 소개한다.

브리티워스는 매일 100여 명의 인력이 선사 사이트에 접속해 화물의 운송 정보를 수집·입력하던 단순 반복업무를 자동화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업무효율을 향상시켰다.

삼성SDS 김형태 물류사업부문장(부사장)은 "블록체인, AI 등 신기술을 통한 다양한 물류 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스마트 물류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대외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SKC "일하는 환경 바꿔 효율 높인다"

공유좌석 등 스마트오피스 도입

SKC가 스마트오피스를 도입하고 일하는 방식 혁신을 가속화한다. 소통과 협업을 늘려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SKC는 약 4개월의 공사를 거쳐 서울 종로구 본사 5개층을 스마트오피스로 구축, 출범식을 열고 '광화문 사옥 시대 2.0'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SKC 구성원이 휴식공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SKC

우선 SKC는 기존 '팀-실-부문' 단위별 지정좌석제 대신 원하는 자리에 앉아 일하는 공유좌석제를 도입했다. 자리 사이의 칸막이는 없앴고 공동업무공간인 프로젝트 룸을 34개로 두 배 늘렸다. 특히 각 층에 카페 못지 않은 휴식공간을 조성해 구성원 소통 공간을 확대했다. 날마다 다른 팀, 실, 부문의 구성원을 만나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간접 경험하거나 다른 시각을 나누자는 취지다.

SKC 관계자는 "다른 부문 구성원이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나오는 등 사업간 융합 시너지가 날 수 있다"며 "개인 노트북만 챙기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글로벌 사이트 구성원도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새로운 사업환경에 더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SKC 관계자는 "이전에는 새로 팀을 만들 때마다 개인별 자리를 배치하거나 새로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등 물리적인 제약이 뒤따랐다"며 "지정좌석이 없는 지금 체제에선 필요에 따라 바로 프로젝트 팀 같은 애자일(Agile)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등 사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과의 소통에도 신경을 썼다. SKC는 고객 대다수가 경기 이남에 있는 점을 고려해 판교와 수원에 거점오피스를 구축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LG G8 씽큐' 15일부터 예약판매

LG전자가 이번 주부터 국내 이동통신 3사 전 매장, LG베스트샵 등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G8 ThinQ(씽큐) 예약판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기간은 15일부터 21일까지이며 정식 출시일인 22일부터 개통을 시작한다.

예약 구매 고객이 LG G8 씽큐를 사용하다 액정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구매 후 1년간 한차례 무상 교체 받을 수 있다. 또 카카오프렌즈 케이스를 포함해, 다양한 LG G8 씽큐 케이스 가운데 하나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LG G8 씽큐는 전작인 LG G7 씽큐보다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면서도 출고가는 89만 7600원으로 낮췄다.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의 가격이 지속 높아지는 추세인 가운데, LG전자는 보다 많은 고객들이 LG G8 씽큐만의 프리미엄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즐길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했다.

먼저 LG G8 씽큐는 디자인이 보다 고급스러워졌다. 뒷면 강화유리 안쪽으로 카메라 모듈을 처리한 언더글라스 방식을 적용, 카메라 돌출이 전혀 없다. 앞면은 수화부 리시버조차 없애며 매끈한 디자인을 자랑한다.

또 LG 스마트폰의 독보적인 명품 사운드는 유지하면서 스테레오 스피커를 구현했다. 화면이 소리를 내는 '디스플레이 스피커'는 고객이 화면 어디에 귀를 대더라도 선명한 통화가 가능하다. 소리의 입체감을 높여주는 DTS:X는 이어폰과 자체 스피커 모두를 지원한다. 메리디안 사운드, 고해상도 음원을 재생하는 '하이파이 쿼드 DAC'도 그대로다.

LG전자가 이번 주부터 국내 이동통신 3사 전 매장, LG베스트샵 등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G8 ThinQ(씽큐) 예약판매를 시작한다. /LG전자

LG전자는 LG G8 씽큐 전·후면에 각각 'Z카메라'와 망원카메라를 추가 탑재하며 카메라 성능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구서윤 기자

KT 기가인터넷 53개월만에 500만명 돌파

KT 기가인터넷 가입자가 출시 53개월만에 500만명을 돌파했다.

KT는 지난 2014년 10월 국내 최초로 전국 상용화를 개시한 KT 기가인터넷이 출시 53개월만인 올해 3월에 가입자 500만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 기가인터넷 가입자 점유율 약 58%(업계 추정) 수준이다. 이는 국내 전체 인터넷 이용자(지난해 12월 말 기준 2130만명)의 23%에 해당하는 수치다.

KT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중 기가인터넷 가입자 비중은 2015년(12월 기준) 25.7%에서 2018년(12월 기준)도 65.6%로 3년만에 2배 이상 늘었다.

KT는 이 같은 강력한 유선 인프라를 토대로 지난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10기가 인터넷' 흥행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